**이름**

김정도

* **블로그나 브런치, 인스타그램 작가 계정 보유자의 경우, 활동명과 아이디, URL주소등등을 적어주세요.**

@rb\_letters https://instagram.com/rb\_letters?igshid=1homhgb6h3d86

* **제출 글 1 PDF - 문단 배치, 연갈이, 행갈이 확인 목적**

[cDRkG6Fa\_5\_그대와\_나의\_블루스\_김정도\_부산대학생연합문예동아리지은.pdf](javascript:void(0);)

* **제출 글 1 워드 혹은 한글 - 텍스트 추출**

[cDRkG6Fa\_7\_그대와\_나의\_블루스\_김정도\_Rizingblare.hwp](javascript:void(0);)

* **제출 글 1에 대한 작가의 말 - 띄어쓰기 포함 200자**

해당 작품은 어머니가 참 좋아했던 노래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미안한 마음, 약속, 상처 등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선 예전에 사랑했던 연인, 혹은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이올린 음악소리와 함께 들으면 그 감정이 더 고스란히 전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 **흙, 잔디, 아스팔트, 시멘트 중 제출 글 1과 '가장'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

흙

* **흙, 잔디, 아스팔트, 시멘트 중 제출 글 1과 '두번째로'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

잔디

* **제출 글 2 PDF - 문단 배치, 연갈이, 행갈이 확인 목적**

[cDRkG6Fa\_16\_정기합평① '-가 쓰는 일기'\_9월3일\_김정도\_Rizingblare.pdf](javascript:void(0);)

* **제출 글 2 워드 혹은 한글 - 텍스트 추출**

[cDRkG6Fa\_18\_정기합평① '-가 쓰는 일기'\_9월3일\_김정도\_Rizingblare.hwp](javascript:void(0);)

* **제출 글 2에 대한 작가의 말 - 띄어쓰기 포함 200자**

해당 작품은 지은 문예 동아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선보였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사한 칭찬을 들을 수 있어 정말 행복했고 그래서 더 애착이 많은 작품입니다. '-에게 쓰는 일기'라는 합평 주제에 부합할 수 있게 지금껏 써오던 일기의 분위기처럼 솔직한 모습을 전달하려 했고, 일기를 쓰는 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고민을 함께 담았습니다.

* **흙, 잔디, 아스팔트, 시멘트 중 제출 글 2와 '가장'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

잔디

* **흙, 잔디, 아스팔트, 시멘트 중 제출 글 2와 '두번째로'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

흙

* **작가인터뷰 - Q1. 작가님을 한 문장으로 소개해주세요! (인적사항 제외)**

저는 작가가 되길 포기한 작가입니다.

* **작가인터뷰 - 원하는 질문을 선택해주세요. Q2.**

당신에게 글이란?

* **작가인터뷰 - Q2. 위 질문에 대한 답 -띄어쓰기 포함 350~400자**

저에게 글이란 제가 엿보고 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먼저 전해 들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그저 들려줄 뿐이죠.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는 이야기꾼처럼요. 내 이야기는 끝이 났더라도 내가 없는 시간 속에서 그들만의 이야기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순간에 쓴 글을 최대한 고치지 않으려 생각합니다. 그때 그 순

간에 내가 보고 듣고 쓴 이야기와 지금의 내가 새로 쓰는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글을 쓸 때마다 하나의 세상이 생겨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세상을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저 혼자만 간직하는 것만큼 아쉬운 일도 없겠죠.

**작가인터뷰 - 원하는 질문을 선택해주세요. Q3**

왜 글을 쓰시나요?

* **작가인터뷰 - Q3. 위 질문에 대한 답 -띄어쓰기 포함 350~400자**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바로 제가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재밌어하거나 혹여 그로 인해 다른 영감을 얻는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될 거예요. 글을 쓰는 또 다른 이유이자 마지막 목적지가 있다면, 제 자신을 울릴 수 있는 글을 쓰는 일이에요. 정말 펑펑 울 수 있는 글이요. 어릴 때부터 울 일도 많았고, 또 많이 울어서 그런지, 웬만한 일에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제게 주고 싶은 선물이에요. 삶에 지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들어도, 미안한 마음이 가슴을 파고들어 와도,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펑펑 울고 싶은 날에도. 익숙해져 버린 건지 방어기제의 발동인지 어느 쪽이든 단단히 잠겨버린 마음에 열쇠를 선물하는 일이 아주 어설픈 이야기꾼의 그 마지막 무용담을 장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작가인터뷰 - Q4. 맺음말 - 띄어쓰기 포함 200자 이내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자유롭게 써주세요.)**

덕분에 글을 짓는 일에 작은 보람을 느끼고 대한 조그만 열정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지치고 힘들었던 만큼 더욱 찬란하고 눈부신 시간들이 펼쳐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